

## 제주 해군기지의 역할과 전망

이 춘 근\*

---

### I. 들어가는 말

### II. 21세기는 바다의 시대

1. 새 시대의 새로운 전략사고
2. 21세기 한국의 국가안보는 해로안보(海路安保)

### III. 제주 남방해로의 사활적 중요성

1. 제주 남방 항로의 보호는 한국 해군의 최소한의 임무

### IV. 제주 해군기지의 전략적 위치(Strategic Location)

1. 동지나해 부존자원 보호를 위한 요충지
2. 한반도의 해역의 주권 보호를 위한 요충지
3. 해로보호를 위한 전략기지의 역할

### V. 제주 해군기지와 대한민국 해군력의 발전

1. 한국에 드리운 해양안보 이슈들
2. 한국 해군력을 제고시키는 제주 해군 기지

### VI. 맺는말

---

---

\*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I. 들어가는 말

제주도 해군 기지가 우여곡절 끝에 2016년 2월 26일 겨우 준공되었다. ‘우여곡절’, ‘겨우’ 등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현재 수준의 해군 기지를 만들기 위해 소요(所要)된 시간이 너무나도 길었다는 점에서 비롯한다. 제주해군 기지에 대한 최초 소요가 제기된 것은 1993년 12월 합동 참모회의에서의 일이었다, 14년이 지난 2007년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와 제주도 간에 협의에 따라 강정해안이 건설지역으로 확정되었다. 이후 2008년 9월 국가정책 조정회의에서 민과 군이 함께 사용하는 ‘민군복합형 관광 미항’으로 건설하는 것이 결정되었고, 2010년 1월 항만 공사를 착공한 후 6년 2개월 만에 드디어 준공식을 거행하게 된 것이다. 세계에서든 국가 안보가 가장 위태로운 나라 중 하나인 대한민국에서 해군기지 하나를 짓는 데 걸리는 시간이 총 23년이나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앞날을 어둡게 한다. 21세기 험난한 파도를 헤쳐 나가야만 하는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과 기지하나 만드는 데도 온 국가가 분열되어 혼란의 와중에 빠졌었으니 이보다 더 큰 국가안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앞선다.

그동안 필자를 비롯한 많은 군사전문가, 특히 해양안보에 관심이 많은 학자들은 제주 해군기지의 조속한 완성을 역설해 왔다. 그러나 국가안보의 필요성보다는 이념적으로 경도된 좌경 중북 세력의 논리가 더욱 강했다. 군사기지 건설 현장에 드러누워 때를 쓰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아 왔다.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해군기지이기에 더욱 감회가 깊고 이 기지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말로 소중하게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2006년 12월 국가 전략적 필요에 의한 제주해군 기지 건설여부가 일반 국민, 특히 제주도민들의 여론에 의해 그 가부가 판결될 것이라고 결정되었다. 이후 해군 기지를 건설해야 마느냐에 대해 논쟁하는 각종 세미나와 학회들이 열렸다. 국가의 전략 기지가 “여론”에 의해 판가름될 희대의 상황이 연출되었다. 여론에 의해 국가 안보문제가 결정된다면 그 누구가 전쟁터에 나가려 할 것이며 그 누구가 군대에 가려고 할까? 영국의 처칠 수상은 리더십이 불량한 사람이라 영국 국민들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 죄송하다고 말했던가? 국가안보란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영역이 아닌가? 그래서 해안 있는 지도자가 국민을 설득하고 이끌어 나가야 하는 이슈 영역이 아닌가? 필자

는 여론조사가 있기 직전,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5년이 넘도록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비판한 글을 작성한 적도 있었다. 당시 제주도민 40%가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고 있었다.<sup>1)</sup>

아무튼 그런 과정을 힘겹게 겪어가며 겨우 제주 해군기지가 완공되었다. 2014년까지 그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늦춰진 2016년 지난 2월 하순 대한민국 정부는 국무총리의 주관 아래 정부행사로서 민군 복합항 준공식을 거행했다. 총리를 비롯, 국방장관, 해군 참모총장, 제주도 도지사, 제주 지역 단체장, 국회국방위원, 역대 해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강정마을 주민, 안보 전문가 등 1,200명이 참여, 해군기지의 준공을 축하했다.

앞으로 제주 해군기지를 통해 작전 능력이 현격하게 보강될 대한민국의 군함들도 출동했다. 제주해군기지를 모항(母港)으로 삼을 해군 제7기동전단의 이지스 구축함인 서애 류성룡 함, 구축함인 왕건함 및 문무 대왕함,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 214급 잠수함인 안중근함 등 해군 함정 8척과 해경 경비함 2척이 정박 도열했다. 해병대의 상륙 돌격 장갑차 4대도 전개되어 대한민국의 해양력을 과시했다.

대한민국 해군은 제주민군 복합항 준공에 앞서 작년 12월 1일 부대 방호와 군수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해군 제주기지전대를 창설했고, 12월 22일 이지스 구축함 등으로 구성된 해군 제7기동전단이 부산 작전 기지로부터 제주 민군 복합항으로 이전했다.<sup>2)</sup> 제주 민군 복합항이 드디어 대한민국의 생명선인 남방 해로와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전략적 기지로 태어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제주 해군기지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하는데 이는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이 해양적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대한민국의 남방 해로가 지나가는 바다를 적절히 활용하고 지킬 수 있느냐의 여부에 국가의 융성 발전과 안보가 달려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제주 해군기지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가발전, 번영, 안보를 위해 담당해야 할 전략적 역할(strategic roles)을 분석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것이다.

1) 이춘근, “제주도 해군기지와 한국의 해양 전략,” 2007년 3월 31일 제주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제주 해군기지 관련 찬반토론 세미나 발표 논문.

2) 이상의 사실들은 해군본부, 『해군』 2016년 3월호, Vol. 462.의 기사를 참조함.

## Ⅱ. 21세기는 바다의 시대

### 1. 새 시대의 새로운 전략사고

세계는 21세기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지 오래되었지만 우리나라는 20세기의 냉전적 전략 상황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21세기는 자유주의 시대이며 자유무역의 시대다. 바다가 대세인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북한에 붙들려 있다. 문제는 북한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넘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략 사고가 아직도 대륙적인데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수십 만 톤급 화물선을 타고 바다로 뺏어나가야 할 시점에 기차로 유럽까지 화물을 나르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도 있다. 비행기로 한나절에 가야 할 유럽을 기차 타고 가겠다는 기가 막힌 발상도 한다.<sup>3)</sup> 이처럼 아직도 대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 장보고, 이순신을 자랑하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본다면 바다를 경원시하는 민족이요 국가였다. ‘뱃놈’이라 말하여 선원을 비하했고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물가에 가지 마라’고 가르쳤던 나라였다. 한국이 바다와 친근해지고 바다를 통해 국가가 번영하게 된 계기는 1960년대 이후 약 50여년에 불과한 짧은 기간이었다.

그러나 한국이 바다를 잘 이용한 지난 50여 년 기간 우리는 미국이 보장해 주었던 해로의 안보 덕택을 톡톡히 보았다. 미국으로부터 해로의 안보를 제공 받은 한국은 해군력의 건설이라는 투자 없이 그 동안 세계 9위의 수출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냉전이라는 특수한 국제정치 체제는 우리나라가 막강한 해군력을 건설해야 한다는 부담없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 대단히 유리했던 역사상의 한 역설적인 시점이었다. 21세기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같은 전략 환경이 끝나고야 말 시대다.

1990년 소련이 붕괴된 후, 정치적 의미의 20세기는 끝나고 새로운 국제정치적 세기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국제정치적 세기는 ‘탈냉전(post Cold War)시대’라고도 불렸고, ‘신 국제질서(New World Order)’라고도 불렸는데 전 세계가 자본주의-자유무역-민주주의-해양세력을 시대의 기본 정신으로 삼게 된 세기다.

3) 필자는 대륙으로 뺏어나가겠다는 생각을 통렬하게 비판한 글을 작성한 바 있었다. 이춘근, “중국의 一帶一路 전략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비판적 논의 (A Commentary),” *Strategy 21* 2015년 5월호.

새로운 시대의 국제안보는 당연히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이처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바로 그 무렵, 대한민국 합참에서 제주해군기지의 소요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대한민국 해군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나섰던 선각자들의 혜안이 대단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다.<sup>4)</sup>

그러나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해양국가화를 극구 반대하고 나섰다. 일본, 미국 등 해양제국과의 관계가 강화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비논리적 반대가 지속되었다. 이들은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 해군의 기항지가 될지도 모른다고 반대했다. 동맹국인 미국이 한국의 영토 내에 있는 해군 기지에 기항할 수 있음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보장된 권리다.<sup>5)</sup>

솔직히 2016년인 현재 우리가 당면할지도 모를 더욱 절박한 현실은 미국 해군이 한국의 바다와 해로를 더 이상 지켜 주지 않을지도 모르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2014년 이래, 앞으로 석유를 수입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에너지 혁명을 경험하고 있으며, 미국이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경우 미국은 세계의 바다를 지키느라 애쓰지 않아도 되는 세월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에너지 혁명을 분석한 경제학자 러셀 골드는 미국은 “여러 세대 동안 석유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고, 전쟁도 했고, 해로를 보호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2020년이 되면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sup>6)</sup>

아직 대통령으로 당선되지는 않았지만, 2016년도 미국 대선전에서 공화당의 선두 주자인 트럼프 후보는 한국을 안보 무임승차 국가로 분류하며, 심지어 미군 철수마저 언급하고 있다.<sup>7)</sup> 트럼프의 언급을 흘려버릴 수 없는 이유는 한

4) 대한민국 해군은 1990년대라는 새로운 전략 환경의 시대, 새로운 전략적 도전의 시대를 맞이해서 바다로 나가야 한다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작했다. 대한민국 해군이 당시 본격적으로 주관하던 함상토론회 및 국제 해양력 심포지엄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핵심전략이 바다에 있다는 사실을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다. 당시 한국 해군의 “대양해군(大洋海軍)” 구호는 한국의 국가전략 방향을 정확하게 지시하고 실행해 나가기 위한 선구적인 표어였다.

5)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Russell Gold, *The Boom: How Fracking Ignites the American Energy Revolution and Changed the World* (New York: Simon and Schuster, 2014), p.33. 원문을 인용한다. “For generations, the United States has used its military might to keep oil flowing, fighting wars and patrolling sea lanes. Maybe this Era will now come to an end. By 2020, America could become the Largest global oil producer.”

7) David E. Sanger and Maggie Haberman, “In Donald Trump’s Worldview, America Comes First, and Everybody Else Pays,” *The New York Times*, March 26, 2016.

국은 물론 일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 모두에서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언급해도 될 정도로 미국은 세계 문제에서 급격히 흥미를 잃고 있다는 사실이다.<sup>8)</sup> 타임지가 2015년 6월 1일 행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들 72%가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다.<sup>9)</sup> 한국인들이 체계적인 분석없이 막말꾼이라고 비난하는 트럼프는 물론 오바마 대통령 역시 영국, 사우디아라비아의 무임승차를 비난하고 나서는 판국이다.<sup>10)</sup>

물론 미국이 한국의 안보에 기여하는 정도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대하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은 대한민국에 사할적인 해로 안보라는 측면에서 볼 경우 미국 해군의 기여는 미국의 지상군과 공군이 한국에 제공하는 안보 지원의 정도를 훨씬 능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 해군을 빼고 생각할 경우 우리 해군은 세계 10위권의 산업 국가이자 무역국가인 대한민국의 해로를 지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도리가 없다.

냉전 시대 동안 한국에서 국가안보라 함은 휴전선을 열심히 그리고 잘 지키면 되는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냉전이 종료된 현재, 비록 북한의 위협이 아직도 전혀 가라앉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세계 10위권의 무역 대국으로 성장한 오늘의 한국에서 국가안보가 의미하는 것은 휴전선을 지키는 일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다. 중동의 석유 수출 항구들로부터 광양, 울산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달려오는 유조선이 단 하루라도 한국의 항구들에 석유를 부어 넣지 못하는 날 한국은 그야말로 생명선이 끊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생명선, 즉 해로를 지키는 것이 21세기형 국가 안보전략이며 제주 해군기지는 21세기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요체인 해로안보를 위한 기초적인 인프라가 되는 것이다.

## 2. 21세기 한국의 국가안보는 해로안보(海路安保)

바다가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는 중요성은 이슈상으로 정치, 군사, 안보 및

8) Ian Bremer, *Superpower: Three Choices for America's Role in the World* (New York: Portfolio, 2015). 이 책에서 타임지 편집장인 브레머는 에너지와 식량을 자급한 미국은 국제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9) *Time*, June 1, 2015. 브레머 편집장이 자신의 책에서 제기했던 주장을 여론조사 한 것이다.

10) "Obama Doctrine," *The Atlantic Monthly*, April, 2016.

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바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자원 보고로서의 바다, 그리고 해양 통로로서의 바다로 나누어서 분석될 수 있다. 한국에게 있어 바다가 가지는 결정적 중요성은 ‘교역의 통로’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한국에게 있어서 해로는 생명선(Life Line)과 같다. 해로가 차단되면 우리나라는 죽는다. 그래서 해로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해로를 지키는 것은 해군력이고, 해군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해군의 기지가 있어야 한다. 제주 해군기지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우선 제주 해군 기지의 전략적 역할을 논하기에 앞서 한국의 해로가 얼마나 안전한가 혹은 취약한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자.

현재 한국은 국가 총생산의 약 90%를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친 금액이 우리나라 GDP의 90%에 육박하고 있다는 의미다.<sup>11)</sup> 한 나라의 대외의존도는 그 나라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의 합계와 그 나라의 GDP를 비교하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국제무역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나라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 물동량의 99% 이상이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며, 바다는 우리의 생명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해로가 안전하지는 않다는 사실이며, 지금까지 안전했던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남의 능력, 특히 미국의 해군력에 의존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로는 가장 값싸고 빠른 길이기는 하지만 언제라도 안전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 위험한 길이다. 육지의 길은 모두 독립 주권국가의 관할권 아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그 국가의 경찰력에 의해 보장된다. 그러나 바다의 길은 그렇지 못하다. 바다의 길은 육지에 연해있는 영해를 통과하는 길이 아닌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公海)를 통과한다. 공해는 법적으로 어느 나라의 배타적 주권이 미치는 곳이 아니며, 공해를 통과하는 자국의 무역로를 지키는 현실적인 힘은 각국의 해군력이다.

즉 영해(領海) 밖의 모든 해로는 이론상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으며, 언제라도 안정과 안전이 훼손당할 수 있는 길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무역상대국들인 중국, 미국, 일본, 그리고 석유를 수입하는 중동에 도달할 수

11)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수출은 5천 940억 달러로 수입은 5천 420억 달러라고 발표했다. 헤럴드 경제 2014년 12월 31일자. 2014년 한국의 GDP는 1조 3천 43억 달러였다.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는 (수출액+수입액)/GDP 0.87에 이른다.

있는 통로는 해로 외에는 없다. 해로의 중요성은 상품별, 지역별로 약간씩 차이가 날 것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식량을 수입하지 않으면 국가가 생존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바다를 통한 수송로는 그것이 어느 나라로 연결되는 것이든 관계없이 모두 우리나라의 생존에 사활적(死活的)으로 중요하다.

한국의 해로는 한국을 중심으로 크게 동, 서, 그리고 남쪽으로 이어져 있으며 그 길이도 대단히 길다. 대한민국이라는 국제적으로 우수한 공장을 가동시키기 위한 사활적인 에너지원인 석유는 중동의 페르시아 만으로부터 인도양을 거쳐 말라카 해협을 거쳐 남지나해, 그리고 동지나해를 통과해서, 부산 울산과 이어진다. 우리의 석유 수송로는 그 길이가 6,350해리나 된다.(부산-쿠웨이트 기준)

우리 상품의 주요 수출 시장이며 우리 국민의 식량의 주 공급원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까지는 각각 4,918해리, 5,229해리가 된다. 그리고 최근 한국과 무역거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호주의 시드니까지는 4,630해리나 된다. 한국은 한국 국민의 생존을 위해 절대로 필요한 에너지를 한국의 남서 항로를 통해 구입해 오며, 한국의 생존과 직결되는 식량은 남쪽과 동쪽의 항로를 이용해서 수입한다. 물론 중국, 일본 등 비교적 가까운 지역으로부터의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국가 생존을 위해 사활적인 기본적인 전략 물자(식량과 석유)가 수입되어 오는 해로가 너무 멀다는 것이 한국 해로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처럼 다양한 항로 중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애써서 제일 중요한 항로 하나를 선정하라면 역시 남방항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남방항로는 석유라는 사활적인 상품의 수입 통로인 동시에 우리나라를 향해 오는 여러 해로들이 하나의 중요 해로로 합쳐지는(merge) 곳이기 때문에 특히 그러하다. 한국 대부분의 주요 항구들이 남해안과 서해안에 밀집되어 있는데 남방해로는 바로 이들 항구들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해로인 것이다.



### Ⅲ. 제주 남방해로의 사활적 중요성<sup>12)</sup>

한국의 해로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없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도 남방을 지나는 항로라고 말했다. 제주 남방 항로는 매일 수백 척의 상선과 어선, 그리고 유조선이 통과하는 항로다. 이 항로는 수출액이 5,000억 불을 넘는 세계 9위의 무역대국 대한민국의 수출입 물동량 중 99.8%가 통과하는 곳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제주 남방 해로는 대한민국의 핏방울과 같은 석유수송로라는 사실에 있다.

울산에서 페르시아 만까지의 평균 항해 기간은 17-18일 정도가 걸린다. 매일 약 40만 톤(250만 배럴)의 석유가 부어져야만 가동할 수 있는 공업국가 대한민국은 제주 남방 항로를 반드시 항해해야만 하는 유조선들의 안전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차 대전 해전의 영웅 니미츠 제독은 “수도를 뺏기고도 전쟁에 승리한 나라는 있지만 석유 수송로를 뺏기고 전쟁에 이긴 나라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석유, 다음이 무기, 다음이 식량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대한민국에게 있어 이 같은 언급은 더욱 타당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전쟁 당시 수도를 빼앗겼던 한국은 전쟁 물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산항을 지킴으로써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 세계의 중요한 전쟁들에서 궁극적인 승자가 되었던 나라들이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것 역시 전략 물자의 수송을 위한 해로였다.

#### 1. 제주 남방 항로의 보호는 한국 해군의 최소한의 임무

한국의 해로는 그 길이가 길다는 특징 이외에 해로의 통과 수역이 불안정한 지역이 많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하고 위협한 것이 중동-극동을 잇는 한국의 석유해로다. 중동-극동을 잇는 해로는 한국으로 오는 길이 특히 더 중요하다. 이 노선을 통해 한국 국가존망에 사활적이며 한국 공업의 원동력인 석유가 수입되기 때문이다. 일본 역시 이 석유 수송로에 국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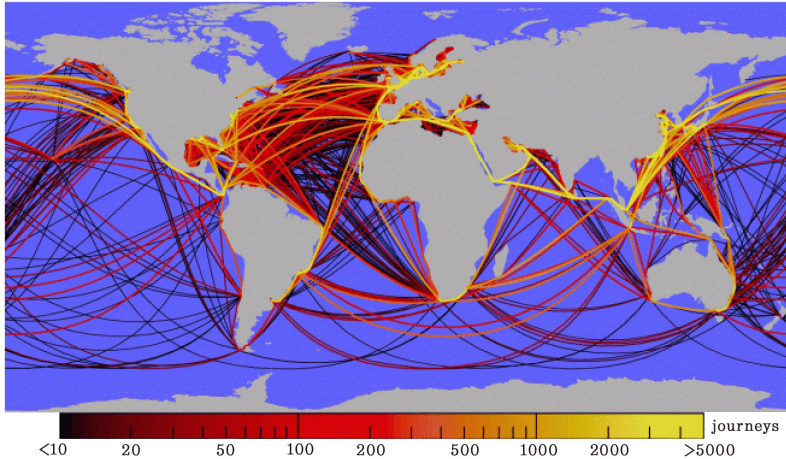
12) 이 부분의 논의는 필자가 제주해군기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제주도 지식인들과의 찬반토론회에서 찬성의 논리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했던 논문을 많이 재활용했다. 이춘근, “제주도 해군기지와 한국의 해양전략” (2007년 3월 31일 제주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세미나 발표 논문).

사황이 걸려 있기는 마찬가지다.

국가안보를 진정 완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페르시아 만으로부터, 인도양, 말라카 해협, 남지나해, 제주해협에 이르는 온 항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해군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같은 해군력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벽찬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미국 해군의 지원을 받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독립 국가인 대한민국은 최소한 스스로의 능력으로 사황적인 해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먼 곳의 해로는 우회할 수도 있고 적(敵)이 있으면 비켜갈 수도 있다. 그러나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해로가 있다. 바로 세계 각지로부터 한국 본토에 이르는 마지막 부분이 그러한 곳이다. 세계 방방곡곡으로부터 한국을 향하는 항로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제주 앞바다를 지나는 곳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다음의 지도는 제주도의 남쪽 바다 및 제주 남방 해로가 한국에게 얼마나 사황적으로 중요한 곳인지를 보여준다.<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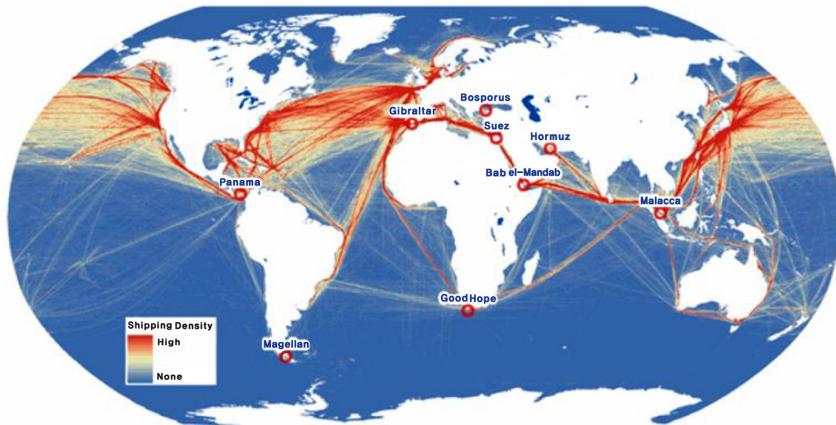
세계의 해로 지도 1.



13) 이 지도는 필자가 아래의 주소를 인터넷 서핑해서 찾은 것임. 노란색으로 표시된 선이 물동량이 가장 많은 해로들을 의미하는데 제주도 남방지역이 집중적으로 노란색으로 채색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https://www.google.co.kr/search?q=%ED%95%9C%EB%B0%98%EB%8F%84+%EC%A3%BC%EB%B3%80+%EC%A7%80%EB%8F%84+%ED%95%B4%EB%A1%9C&biw=1600&bih=805&tbm=isch&imgil=I5MjTmBYnGj97M%253A%253BFyWCjqJdDHs6jM%253Bhttp%25253A%25252F%25252Fblog.cizion.com%25252F331&source=iu&pf=m&fir=I5MjTmBYnGj97M%253A%252CFyWCjqJdDHs6jM%252C\\_&usg=\\_\\_CDSFkxtWR7jZqbJ-0o3Blv0fvJY%3D&dpr=1&ved=0ahUKEWjc7PLp6-7LAhVkiYKHXhRCgIQyjcIJQ&ei=tyX\\_Vpy1BOTEmAWloqkQ#tbm=isch&q=world+sea+route+map&imgcr=PC2uVYnMFqkMHM%3A](https://www.google.co.kr/search?q=%ED%95%9C%EB%B0%98%EB%8F%84+%EC%A3%BC%EB%B3%80+%EC%A7%80%EB%8F%84+%ED%95%B4%EB%A1%9C&biw=1600&bih=805&tbm=isch&imgil=I5MjTmBYnGj97M%253A%253BFyWCjqJdDHs6jM%253Bhttp%25253A%25252F%25252Fblog.cizion.com%25252F331&source=iu&pf=m&fir=I5MjTmBYnGj97M%253A%252CFyWCjqJdDHs6jM%252C_&usg=__CDSFkxtWR7jZqbJ-0o3Blv0fvJY%3D&dpr=1&ved=0ahUKEWjc7PLp6-7LAhVkiYKHXhRCgIQyjcIJQ&ei=tyX_Vpy1BOTEmAWloqkQ#tbm=isch&q=world+sea+route+map&imgcr=PC2uVYnMFqkMHM%3A)

위의 지도는 제주도가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을 웅변적으로 말해 준다. 한국의 3대 해로 중 가장 중요한 해로가 제주 남방 해로라 함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제주 남방 해로가 특히 중요한 것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물동량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활적인 전략물자(식량과 석유)는 궁극적으로 제주 남방 해로를 통해서만 한국의 주요 항구(부산, 울산, 광양, 여수, 인천, 목포)에 도달할 수 있다. 한국이라는 국가가 위기에 놓이는 경우란 바로 수입 물동량이 더 이상 한국으로 원활히 유입되지 못할 경우를 위미한다. 국제분쟁 상태에 있는 나라들이 상대국을 봉쇄하는 것이 바로 상대방을 향한 물자 유입을 중지시키기 위한 일이다. 외국으로부터 물자가 끊임없이 유통될 수 있는 나라는 모든 전쟁에서 궁극적인 승자가 되며 국가안보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지도 역시 한반도의 남방해로, 특히 제주도 인근을 지나는 해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sup>14)</sup>

세계의 해로지도 2.



이상과 같은 해로 안보에 관한 일반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제주 남방 해로는 한국이라는 국가의 최후 방어선이라고 해도 된다. 제주 남방 해로를 지킨다는 것은, 그리고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해군력을 건설하고, 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국가 방위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다. 이 같은 행위를 공격적이라고 볼 나라는 없다.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 한다는 것은 한국으로 오는 마지막이자 결정적인 해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성격이 훨씬 강한 우리의 국방노력이기 때문이다.

14) Ibid.

## IV. 제주 해군기지의 전략적 위치(Strategic Location)

제주 해군기지는 전략적 위치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결정적 기여를 담당할 수 있다. 하나는 한국도 당연히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해저 부존자원을 보호, 확보하는 기능이며, 두 번째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야기되는 영유권 및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이며, 세 번째는 한국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한 해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데 최적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각을 설명해 보기로 한다.

### 1. 동지나해 부존자원 보호를 위한 요충지

제주 해군 기지는 본 논문 3장에서 살펴본 바처럼, 그리고 세계의 무역해로 지도에서 본 것처럼 세계의 무역 국가 중 하나인 대한민국의 사활적인 해로가 지나가는 길목에 놓여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제주도는 한반도 해역의 지리적 중앙으로 동·서·남해로 신속하게 이동 및 전개가 가능한 섬이며 제주도 남측에 자리하고 있는 강정 기지는 서태평양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기지가 될 수 있다. 제주 해군 기지는 단순히 '해로'만을 보호하는 의무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제주 해군 기지 남쪽 해역은 석유 및 가스 등 해저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의 보고(寶庫)이기도 하다. 현재 제주도 남방 해역 대륙붕 지역에는 석유, 천연가스 등 230여 종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제주 서남해 지역에는 천연가스 및 원유가 72억 톤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된다. 제주 남부 동중국해 원유 매장량은 100~1,000억 배럴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sup>15)</sup>

물론 제주도 남쪽 해역에 얼마나 많은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주변 각국들 모두가 이 지역의 자원 부존 가능성에 참여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해군력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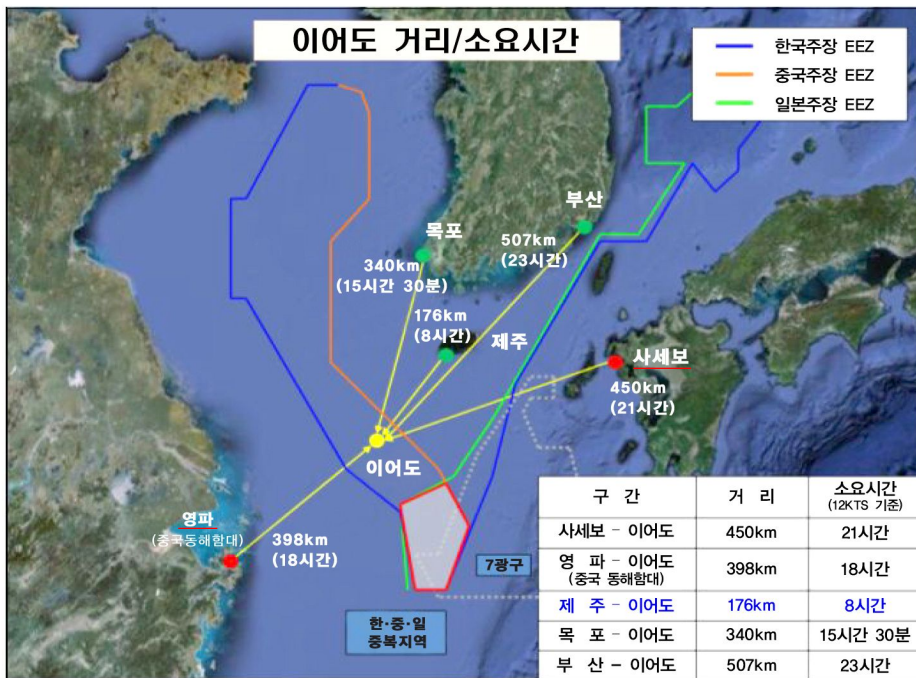
우리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권리를 해군력의 부족 때문에

15) 해군본부 보도자료,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실은 이렇습니다!" p.3.

남의 싸움처럼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제주남방의 바다 (동중국해)에서 자원을 둘러싼 분쟁을 상정할 경우, 자원 보호 및 확보를 위한 최적의 해군기지가 아닐 수 없다. 분쟁 지역에 가장 빨리 해군을 출동시킬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지역은 전략의 집중과 분산에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중일 해양 분쟁 발발 시 신속하게 대응 가능한 최적의 요충이라고 말할 수 있다.

## 2. 한반도의 해역의 주권 보호를 위한 요충지

제주 해군기지는 한반도 주변 해역의 기대되는 부존자원을 보호한다는 목적과 더불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국가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최적의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한중관계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이어도와 배타적 경제수역 이슈에서 제주 해군 기지의 역할을 보여 주는 지도다.<sup>16)</sup>



16) 위의 자료에서 인용.

이어도는 수면 아래에 있는 암초이기 때문에 한중간 영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한국은 오랫동안 이어도를 한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수역에 있는 암초로 인식해 왔고 현재 과학기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실상의 영토와 같은 지역이다. 중국은 이어도를 자신의 영유권이 미치는 곳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의 과학기지를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이어도가 포함되는 수역의 상공에 항공식별 구역을 설치하는 등 한국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는 행동을 급격하게 늘이고 있다.<sup>17)</sup> 중국은 자신이 한국보다 대국(大國)이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획정하는 경우 중간선을 택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서해에는 아직 한중 양국 간의 EEZ도 획정되지 못한 상태다.

이어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는 3,000톤급 해양경찰 소속 대형경비함 주 작함을 이어도에 상주시키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이어도에서 보다 심각한 분쟁이 야기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어도에 가장 빨리 도착하는 편이 우세한 입장에서 전투를 벌일 수 있다. 중국 동해 함대 기지가 있는 영파에서 이어도까지는 그 거리가 398km로 약 18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제주 해군기지에서 이어도까지는 176km로서 8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다. 결정적으로 유리한 기지가 아닐 수 없다.

제주 해군기지는 중국과 일본이 해양 분쟁을 벌일 경우에도 전략적 역할을 담당하기 용이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 양국 간의 분쟁에 한국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국은 그 전략적 위치 때문에 일본과 중국 사이의 분쟁에서 완전한 중립을 지키는 것이 용이한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주변국들이 싸울 때마다 한국의 처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1895년의 청일 전쟁, 1904-1905년의 러일 전쟁 등은 우리나라가 중립이었던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반도와 그 주변 해역 그 자체가 전쟁터가 되었었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제주 해군기지는 중국과 일본이 다투게 될 경우 적어도 우리나라의 영토와 해역이 저들의 전쟁터가 되는 것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17) 송성대, “한중간 이어도 해역 경계 획정의 몇 가지 쟁점들에 관한 리뷰,” 『이어도연구』 6호 (2015) 이어도 연구회 간행, pp.113-114.



### 3. 해로보호를 위한 전략기지의 역할

제주 해군기지가 담당할 수 있는 3번째 전략적 역할은 한국의 남방해로를 보호하는 일이다.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이 대양으로 진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 방방곡곡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여러 해로들이 하나로 수렴되는 지점이 되기도 한다.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남방해로의 바로 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방해로가 서해 방면, 그리고 대한해협 방면으로 나뉘어지는 분기점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은 제주해군기지가 한국의 해로 보호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정학적 요소다.

지도: 제주도과 남방해로



## V. 제주 해군기지와 대한민국 해군력의 발전

### 1. 한국에 드리운 해양안보 이슈들

필자는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의 해양안보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한국의 주변 바다를 관찰해왔다. 한국의 해양안보는 2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다지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고 보인다. 한국에 드리운 바다의 불안정이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는 대신 오히려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대처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정도다. 이처럼 오랫동안 완화되지 않고 있는 한국의 해양안보 문제는 1)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2) 중국에 제기하는 주권 위협, 3) 중국이 제기하는 어업관련 위협, 4) 일본이 제기하는 주권 위협, 5) 한국의 무역로-석유수송로에 대한 해로 안보 위협, 6) 최근 미국 일각에 나타나고 있는 고립주의적 행태로 인한 위협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위의 6가지 해양안보 위협 요인 중 어느 것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이 없다. 북한의 도전은 근래에 이르러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북한은 2015년 가을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실험 발사하기도 했다. 북한이 SLBM을 현재 완성한 상태는 아닐지라도 금명간 완성할 것으로 가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국가안보 전략의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정말 심각한 위협은 중국의 부상과 중국의 해군력 강화가 미치는 안보 위협이다. 중국이 부상하며 보다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 한반도 주변 해역의 안보 상황은 극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해군의 증강에 대응한 일본 해군의 증강, 미국 해양력의 아시아 해역으로의 집중 현상 등은 한반도 주변 해양 안보 환경을 결정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들이다.

일본은 아직 본격적인 군사력 강화를 이룩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미국의 비호 아래 보다 적극적인 군사행동을 벌이기 시작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 해군대학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장교들이 수십 명 이상 파견되어 미국 해군과 함께 War Game 연습을 하고 있으며 미국과 함께 상륙작전 연습을 하기 시작한 지도 이미 수년이 지났다. 2015년 9월 3일, 중국이 12,000명의 병력을 동원, 전승을 기념한다며 최대의 군사퍼레이드를 벌인 날, 일본자위대 병력과 미군 병력 11,000명은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상륙전 연습을 단행했다.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상륙전 능력까지 갖추게 될 일본 역시 한국 해군이 잠재적 안보 위협으



로 생각하고 대처해야 할지도 모른다.<sup>18)</sup> 더 나아가 한국은 중국, 일본과 바다를 통해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 일본이 생명선으로 간주하는 해로(SLOC/Sea Lanes of Communication)를 공유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제기되는 주권적 위협, 즉 영토 및 관할권 위협을 직접 당하는 위치에 있으며 해로를 공유하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이 갈등을 벌이는 경우 우리 해로도 덩달아 위협해진다는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

중국이 한국의 주권에 위협을 가한다는 사실을 우리나라 일반 시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지만, 이어도 및 서해에서의 EEZ 획정에 관한 중국 측의 주장은 우리의 주권에 심각한 도전이 되는 것이다. 다만 중국은 한국을 일본과 적대적인 위치에 존치(存置)시키기 위해, 또한 가능하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목표아래 문제를 노골적으로 건드리지 않고 있을 뿐이다.

중국의 어선들이 불법 조업으로 한국 해역의 어족 자원들의 씨를 말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되었다. 한국은 중국에게 항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중국 당국자들은 자신들도 중국 어부를 통제할 수 없다며 발뺌한다고 한다.

최근 미국 일각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고립주의적 성향은 향후 대한민국의 안보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본 논문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고립주의 현상은 특정 정치가의 특이한 주장만은 아니다. 역시 국가안보의 가장 확실한 수단은 자신의 능력을 기른다는 데 있다.

## 2. 한국 해군력을 제고시키는 제주 해군 기지

우리의 해군력을 기른다는 일은 각종 군함을 더 많이 장비하고 해군의 병력을 늘이는 일일 것이다. 이 같은 목적을 위해 반드시 동행되어야 할 일은 해군 기지를 확보하는 일이다. 더 큰 군함, 더 큰 잠수함, 그리고 더 많은 척수의 함정들이 정박하고, 정비 받을 수 있는 항구, 전략적으로 요충에 자리잡은 항구는 해군력 건설의 기본적 요건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제주 해군기지의 준공은 비록 늦기는 했지만 한국 해군력 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해군 기지를 제주도 남방에 하나 건설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8) 현재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매개로 잠재적인 동맹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일 간의 역사적 갈등은 언제라도 현실적인 갈등관계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해로 안보 상황은 본시 어려운 것이었지만 지금은 특히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한국의 해양안보는 본질적으로 대양(大洋)과 관련한 것이어야 하지만, 북한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대양에서 해양안보에 대처해야 할 우리의 능력 증강이 어려웠다. 한국 해군은 연안(Brown Water)에서 북한과 대응해야 하며, 인접해양(Green Water)에서는 중국과 일본에 대응하고 있으며, 원양(Blue Water)을 무대로 활동하는 한국의 상선단의 안전항해를 보장할 수 있는 원양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문제는 이 3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순위를 두고 더 시급한 일부터 먼저 하는 것이 전략적인 일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서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하는가? 혹은 원양에서 우리나라 이익을 보호하는 능력을 시급히 갖추어야 하는가?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한민국은 무역국가다운 해군을 갖추기 위해 ‘대양해군 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노력해 왔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이후 우리나라 언론은 한국 해군이 대양해군을 지향하느라 연안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며 비난했다. 이것이 한국 해군이 현재 당면한 원천적인 어려움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을 상당히 기교 있게 해결해 주는 기지가 된다는 점에서도 탁월한 선택이었다. 제주 해군기지는 북한의 해양 도발을 원거리에서 제어하는 역할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해군기지는 국제적 규범을 무시하고 위험한 물자들을 밀거래하는 북한 선박들의 항행을 감시하는 데도 최적의 기지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의 해양 도발 행태를 면밀하게 관찰한 한 학자는 자신의 책 결론부분의 장 제목을 “중국, ‘제주-이어도 점령이 제일 쉬웠어요.’”라고 부치고 있다.<sup>19)</sup> 요즘 필리핀, 베트남을 향해 벌이는 중국의 공세적인 도발정책은 언제라도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전개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중국이 “제주-이어도 점령이 제일 쉬웠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결과가 오도록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제주 해군기지의 건설은 이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아직도 주변 국가들에 비해 해군력이 열세인 우리나라에 게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지정학적인 혜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는 한

19) 강효백, 『중국의 습격: 류큐로 보는 한중일 해양삼국지』(서울: 휴먼 앤드 북스, 2012), 제23장. 이곳에서 강 교수는 중국이 행한 빈번한 도발 및 점령에 관한 역사적 사례들을 인용하며 중국의 제주-이어도 해역 도발이 대단히 현실적인 예상임을 경고하고 있다.

중일 해역의 정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잠재적 충돌 지역 까지의 출동 거리와 시간에서 유리할 것이다.

〈표 1〉 중국과 주변국의 해군력 (톤)<sup>20)</sup>

중 국 함 대	1,42,300톤
미국 태평양함대	347,000톤
일본해상자위대	453,000톤
대 만 해 군	201,000톤
한 국 해 군	195,000톤

위의 표가 말해 주듯 한국 해군은, 물론 우리는 공세적인 군사력을 지향하지 않지만, 서해, 남해, 동해에서 중국, 일본 해군력에 대항하기에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우리 해군이 질적으로 중국해군을 압도하지 못하면서 톤수로는 중국의 겨우 1/8 정도며, 일본에게는 질적으로 열세이면서 톤수로는 일본의 40%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 해군은 우선 주변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의 군사력을 확보해야 한다. 최소한 대한민국의 남방해로, 즉 이어도 수역을 지킬 수 있을 만큼은 강해져야 한다. 우리 해군이 중국을 능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모든 해군력이 한 지점에 모두 집중될 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사활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역에서 적의 도발을 거부(denial)할 정도의 군사력을 갖추면 된다는 의미다. 우리는 우여곡절 끝에 최근 이 같은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대단히 양호한 해군 기지 하나를 제주도 남측 해안가에 건설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 VI. 맺는말

제주 해군기지가 드디어 2016년 2월 26일 준공되게 되었다는 소식에 마음 착잡한 사람들이 많았다. 온갖 이유를 들이대며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20) 자료: 2014년판 平成26年版. 日本 防衛白書 (東京: 防衛省, 2014).

공사장 입구를 막고 드러눕는 전문 데모꾼들 때문에 속절없이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끌어온 세월이었다. 해군기지를 만들어서 중국을 분노하게 한다며 반대한 국회의원도 있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든 제주 해군기지를 우리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주 해군기지는 점차 악화되는 해양 안보 상황에 당면한 대한민국이 보유해야만 할 최소한의 해군 시설이며 앞으로 더욱 확대 발전시켜나가야 할 시설물이다.

제주해군기지는 한국이 당면한 해로 안보 위협 6가지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었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해로안보 위협 6가지는 1)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2) 중국에 제기하는 주권 위협, 3) 중국이 제기하는 어업관련 위협, 4) 일본이 제기하는 주권 위협, 5) 한국의 무역로-석유수송로에 대한 해로 안보 위협, 6) 최근 미국 일각에 나타나고 있는 고립주의적 행태로 인한 위협 등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이상 6가지 해양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아주 유리한 지정학적 요충지에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제주 해군기지는 우리나라도 당연히 권리를 가지고 있는 동지나해의 부존자원의 보호 및 확보를 위해, 이어도 문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등 해양 영유권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그리고 한국에 사활적인 제주 남방해로를 지키기 위해 가장 훌륭한 요충에 자리잡고 있는 군사기지가 되었다.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이 해양국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며 아직은 주변국에 비해 질적, 양적으로 열세인 대한민국의 해군력의 취약한 부분을 지정학적으로 상쇄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영문 자료

- 강효백, 『중국의 습격: 류큐로 보는 한중일 해양삼국지』 서울: 휴먼 앤드 북스, 2012.
- 이춘근, “제주도 해군기지와 한국의 해양 전략,” 2007년 3월 31일 제주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학술회의 발표 논문.
- \_\_\_\_\_, “이어도 해역과 한국의 해양안보,” 한국해양전략연구소-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동 세미나 발표 논문, 2014년 7월 8일.
- David E. Sanger and Maggie Haberman, “In Donald Trump’s Worldview, America Comes First, and Everybody Else Pays,” March 26, 2016 *The New York Times*.
- Ian Bremmer, *Superpower: Three Choices for America’s Role in the World* New York: Portfolio, 2015.
- “Obama Doctrine,” *The Atlantic Monthly*, April, 2016.
- Russell Gold, *The Boom: How Fracking Ignites the American Energy Revolution and Changed the World* New York: Simon and Schuster, 2014.
- Time*, June 1, 2015.

### 2. 공문서

- 대한민국 해군본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자료(보도일 미기재)  
한미상호방위조약 1953.10.1.
- 平成26 年版(2014년). 日本 防衛白書 (東京: 防衛省, 2014).

Abstract

## **Roles and strategic functions of the Jeju Naval Base**

Choon Kun Lee\*

The construction of Jeju Naval Base was finally completed and donated to the Republic of Korea Navy on February 26th this year. There is no doubt that the new base will contribute to the substantial augmentation of Korea's naval power and maritime security. However, we should note that the new naval base took a long and hard twenty-three years to be completed.

In the 21st century, Korea should adopt a new strategy that can fulfill the security requirements of Korea for the new age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21st century is characterized by globalization, and in the world of globalization, a national boarder has become meaningless.

In the late 20th century, after the Cold War, trade between countries have greatly increased and so did the importance of the seas. Having transformed from an agricultural country into a commercial country, Korea went from a continental state to a maritime state. Korea has become the 9th largest trading state, and obviously, the importance of the sea has become significant. Korea's national strategic focus needs to be on the sea for national survival.

Thus, since the 1990s, the Korean Navy has planned to build the Jeju Naval Base. Jeju, due to its geopolitical characteristics, is extremely important to the 21st century Korea's economy and national security. Jeju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sea route that reaches out to the world, and at the same time, the ending point of the sea route that heads towards Korea. Jeju is located in the center of Northeast Asia and thus, Jeju Naval Base is extremely important for the area's security and order. Jeju Naval Base will be very useful not only

---

\* Visiting Prof, Ewha Woman's University & Senior research fellow, KIMS.

for the maritime security of Korea, but also for keeping peace and order in Northeast Asia.

Jeju Naval Base was the minimal effort against the six sea route security threats towards Korea. The six sea route threats are: 1) Threat from North Korea; 2) China's Threat towards Korea's sovereignty; 3) China's treat towards Korea's fishery; 4) Threat from Japan; 5) Threat towards Korea's sea routes; 6) Threat from recent phenomena of isolationism of the United States.

Jeju Naval Base is built for both warships and civilian ships--such as cruise ships--to use. Just like the United States' Pearl Harbor, Jeju Naval Base will become not only the largest military base, but a beautiful tourist site.

**Key Words : Jeju Naval Base, Strategic Function of Jeju Naval Base, Roles of ROK Navy, ROKN's Naval Strategy, ROK's Maritime Strategy**

논문접수 : 2016년 4월 3일 | 논문심사 : 2016년 4월 26일 | 게재확정 : 2016년 4월 29일